

93 시멘트 決算書

金 英 珉

(韓國洋灰工業協會 企劃課)

1. 景氣動向

금년의 景氣動向을 살펴보면, 91년 이후 지속된 景氣下降勢가 올해 1월 이후 4월까지의 완만한 회복을 보였으나 새정부 출범후 經濟活力을 되찾기 위해 新經濟 1백일동안 금리인하와 통화의 신속적인 공급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司正寒波에 따른 소비위축 및 8월 12일 金融實名制의 실시로 인한 일시적인 자금시장의 梗塞, 이상저온 현상으로 인한 농작물 作況不振이 겹쳐 經濟活動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한 해였다.

建設景氣 또한 연초에 建築許可規制가 解除되었고 建築制度의 변경 등에 따른 住居用 建築需要 증가 등으로 인하여 그 회복세가 뚜렷하였고 여기에 정부가 景氣浮揚措置의 일환으로 공공建設工事を 조기발주하여 建設景氣의 회복이 예상보다 빠를 것으로 展望되었으나 金融實名制 실시에 따른 투자 위축 등으로 상반기에 다소 호조를 보였던 建設景氣도 하반기에 주춤하여 연간으로 볼 때 建設景氣 회복세가 미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멘트수요의 先行指標가 되는 建築許可面積動向을 살펴보면 위의 현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데, 금년부터 정부가 建設景氣鎮靜措置의 일환으로 취하였던 住宅建築許可割當制의 완전폐지와 하반기부터 시행된 주거지역내 주차시설확보규정의 강화 등에 영향을 받아 92년 4/4분기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던 住居用 建築許可가 올 1/4분기에도 계속

이어져 전년동기보다 19.4% 증가한 17,147천m²를 기록했고, 商業用도 建築許可規制의 완화로 124.9% 증가한 7,600천m²에 달해 工業用建築이 景氣沈滯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7.9%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總建築許可는 31.3% 증가한 28,916천m²였다. 2/4분기에도 총허가면적은 전년동기보다 46.8% 증가한 30,905천m²로 住居用建築의 早期許可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 住居用과 非住居用 建築許可面積이 각각 62.9%, 28.6% 증가한 18,180천m²와 12,725천m²를 기록하였다.

3/4분기에는 住宅建築 早期許可 분위기가 약화되어 住居用 建築許可面積은 지난해보다 22.9%밖에 증가하지 못했는데 이는 7월까지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 일부 주거용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급증한 서울지역의 건축허가면적이 8월 이후 크게 줄어든 데 기인한다. 그러나 주거용 허가면적은 이러한 서울지역의 建設景氣萎縮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의 큰 폭 증가에 힘입어 연간 15.0% 증가한 62,936천m²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주택호수로 換算하면 대략 55만호에서 60만호 정도의 물량이다.

한편 商業用 建築許可를 포함한 非住居用 建築許可는 전년에 비해 3/4분기에도 계속 증가세를 보였으나 4/4분기에는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豫想된다. 이렇듯 非住居用 建築許可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景氣回復이 지연되고 있으며 金融實名制의 영향으로 建築活動이 萎縮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3/4분기의 非住居用 建築許可面積은 전년보다 19.4% 증가한 11,617천m²로 4/4분

기의 감소예상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와 3/4분기의 증가로 연간 15.5% 증가한 46,105천m²에 달할 것으로 보여 연간 總建築許可面積은 전년보다 15.2% 증가한 109,041천m²로 예상되며 이는 사상 建築許可物량이 가장 많았던 90년 수준(119,419천m²)에 버금가는 것이다.

2. 시멘트需給

우리나라의 경우 새로운 經濟政策이나 建設政策이 建設景氣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친 적이 많았는데 8월 12일 전격적으로 실시된 金融實名제도 그와 같은 현상을 나타내어 시멘트수요에도 반영되었다.

연초에 정부는 新經濟 100일계획의 일환으로 침체된 景氣를 회복시키려는 일련의 措置들을 취하였는데 이중 公共工事의 조기발주는 建設景氣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金融實名制 실시와 함께 建設景氣動向이 매우 불투명해지고 있어 금년의 總內需는 전년에 비해 2.3% 減少한 45,600천톤에 그칠 것으로 展望된다. 한편 生産은 전년보다 8.7% 증가한 46,370천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供給여력을 갖게 됨에 따라 輸入은 전년보다 크게 줄고 輸出은 큰 伸張勢를 보이고 있어 需給狀況이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인한 해였다.

1) 生産

금년의 크링카생산은 44,860천톤으로 전년대비 15.0%, 시멘트生産은 46,370천톤으로 전년대비 8.7% 증가하였다.

시멘트生産을 분기별로 보면 1/4분기에 2.9%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2/4분기 21.9%, 3/4분기 10.1%, 4/4분기 4.5% 증가한 견실한 성장을 기록하였다.

1/4분기 중에는 移越在庫도 어느정도 여유가 있는 가운데 비수기인 1,2월을 맞게 되어 이 기회를 이용, 시설보수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일로 滿室로 인한 일부 制限稼動까지 실시했으며 이로 인해 시멘트生産은 9,143천톤에 그쳤다.

그러나 3월부터 수요가 큰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가동률을 높였으며 여기에 더하여 신설키른의 정상가동으로 분기마다 12,000천톤 이상씩 生産하였다. 특히 4,000천톤 이상씩 生産한 달이 6개월이나 되고 5월에는 4,500천톤으로 월간 사상 최고의 生産實績을 달성하기도 했다.

업체별로 生産실적을 보면 東洋, 韓一이 금년 1월과 전년 12월에 준공한 7호와 6호 키른의 정상가동으로 각각 14.6%, 26.7% 증가한 8,400천톤과 5,300천톤을 나타냈고 92년중 증설한 雙龍, 現代, 星信은 6.2%, 18.2%, 5.7% 증가한 13,550천톤, 4,800천톤, 4,300천톤을 기록하였다.

2) 內需

시멘트需要는 建設景氣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데 建設景氣先行指標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으나 住宅需要鈍化의 지속과 8월 12일 金融實名制 실시에 따른 단기 충격으로 그 회복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연간 住居用 建設投資가 전년대비 2.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非住居用 建設投資는 建築許可의 증가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고, 金融實名制 실시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10.5% 증가를 나타내 침체된 建設景氣를 주

93년 시멘트수급 총괄

(단위 : 천톤)

		92	93	전년비 (%)	
크링카	생 산	39,000	44,860	115.0	
	수 출	673	2,702	401.5	
시멘트	생 산	42,650	46,370	108.7	
	수 내 수	민수	37,394	41,570	111.2
		관수	3,721	3,030	81.4
		계	41,115	44,600	108.5
	요	수 출	1,047	1,556	148.6
		계	42,162	46,156	109.5
재 고	크 링 카	876	1,225	139.8	
	시 멘 트	1,029	1,219	118.5	
	계	1,905	2,444	128.3	
수 입	크 링 카	551	85	15.4	
	시 멘 트	5,550	1,000	18.0	
	계	6,101	1,085	17.8	
총 내 수 (수입포함)		46,665	45,600	97.7	

註 : 93년 12월은 추정치

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建設投資가 金融實名制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91년 하반기부터 建築許可規制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하였던데 대한 反騰勢가 93년초부터 나타났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멘트需要도 前年實績에 상응하는 45,600천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각 분기별로 살펴보면 1/4분기 -18.2%, 2/4분기 2.0%, 3/4분기 8.5%, 4/4분기 -2.8%로 建設景氣의 회복세가 시멘트需要에는 직접 반영되지 않았음을 나타냈다.

그러나 공급능력의 확대로 수입이 크게 줄어 출하는 전년보다 8.5% 증가된 44,600천톤 정도로 예상된다.

(1) 季節別 出荷實績

시멘트는 특성상 需要의 季節性이 뚜렷한 제품으로 비·성수기의 구분이 확실한데 금년의 월별 소비추이를 보면 建設業 비수기인 12월과 1,2월 그리고 여름철 우기인 7,8월에만 월평균치를 밑도는 實績을 보였고, 나머지달은 이를 상회하고 있어 비·성수기의 구분은 되고 있으나 과거 10년간의 계절지수를 보면 그 차이가 점차 좁혀져 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연중 최성수기인 4월과 9월은 각각 4,601천톤, 4,735천톤의 實績을 기록하였고, 특히 9월의 內需出荷는 월간 사상 최대의 기록으로 이는 일평균 약 158천톤이出荷된 것이며 9월 10일은 일간 최대인 192천톤을 기록하기도 했다.

반기별 出荷構成比는 상반기의 22,218천톤, 하반기의 23,382천톤으로 연간 內需物量의 각 48.7%, 51.3%를 점하고 있어 전년의 상반기出荷가 많았던 것과는 반대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2) 需要別·品種別 出荷實績

內需出荷를 需要部門別로 보면 民需 93.4%, 官需 6.6%로, 전년이 民需 92.2%, 官需 7.8%였음을 고려할 때 民需는 매년 그 비중이 높아지면서 需要를 주도하는 반면 官需는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줄어들었다.

品種別 出荷實績은 80년 21.3%였던 벌크시멘트

의 비중이 매년 커지고 있어 需要패턴의 변화를 알 수 있는데, 금년에도 벌크出荷는 33,790천톤으로 國內산 總出荷의 74.1%를 차지, 전년의 70.7%보다 3.4% 포인트 높아졌으며 절대량으로는 17.2%나 증가하였다.

月別 벌크出荷를 보면 비수기인 1월과 우기인 7,8월이 각각 64.0%, 73.2%, 73.8%로 평균치보다 낮았을 뿐 나머지 달에는 모두 75.0% 이상을 나타냈고 輸入시멘트를 포함한 國內 總出荷는 76.7%에 달한다.

이러한 벌크화율의 증가추세는 레미콘出荷가 금년에 87,654천m³으로 시멘트需要가 감소한 것과는 달리 지난해보다 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레미콘사용이 일반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레미콘을 사용할 경우 包裝費用의 節減과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強化 등 利點이 많을 뿐 아니라 선진국의 경우 90% 이상의 벌크사용 실태에 비추어 이러한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地域別 出荷를 보면 서울·京畿地域이 9월까지 14,991천톤으로 전체물량의 44.6%를 占有, 首都圈에서 전체 시멘트需要의 절반가량이 消費되었다.

3. 輸出入

지난 몇년간 國內需要의 급증으로 인하여 輸出物量확보가 어려웠으나 올해의 경우 생산시설의 증대로 공급능력이 크게 증가한 반면 수요는 전년수준에 머물러 물량확보가 용이하여 輸出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輸出市場도 다변화되었다.

그동안의 일본일변도에서 벗어나 동남아와 중동지역에 대한 輸出이 크게 늘었으며 輸出對象國도 16개국으로 확대되었다.

크링카를 포함한 社別 輸出實績을 보면 東洋이 1,670천톤으로 전년대비 316.5%나 크게 증가하였고, 雙龍이 전년대비 48.2% 증가한 1,860천톤으로 2개사의 수출량이 전체輸出量의 83.0%를 차지하였다.

韓一과 現代도 각각 80천톤, 7천톤으로 전년대비 33.3%, 40.0% 증가했다.

특히, 漢拏의 경우 전년도에는 輸出實績이 없었으나 금년에는 450천톤이나 輸出하였는 바, 이 중에서 159천톤은 雙龍과의 交換輸出 물량이며 亞細

亞와 暹信도 雙龍과 交換輸出이 이루어져 각각 30천톤, 157천톤의 實績을 나타냈다.

이러한 현상은 공급과잉이 豫想되는 현시점에서 輸出을 늘리기 위한 바람직한 현상으로 국내 需給管理를 보다 容易하게 하였다.

地域別로 보면 輸出量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한 輸出實績은 지난해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 80년대부터 全體輸出量의 50~60%를 차지했으나 일본국내의 극심한 景氣沈滯에 따른 需要鈍化로 엔고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20.5%에 그친 770천톤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비해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필리핀, 홍콩, 마카오 등 東南亞地域과 아랍토후국연합,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中東地域에 대한 輸出이 크게 늘어 지난해 44.5%였던 이들 지역에 대한 輸出比重이 올해는 76.2%로 급상승했다.

이는 輸出對象國이 일본 중심에서 벗어나 多邊化되고 있는 것으로, 生産能力 증대로 豫想되는 과잉공급 물량을 해소시키기 위해 輸出擴大가 절실한 상황에서 輸出先 다변화를 위한 업계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修交 이후 국내시멘트업체들이 합작공장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에는 10월까지 東洋과 漢拏에서 각각 117천톤, 139천톤으로 모두 256천톤의 시멘트를 輸出하였다.

또한 10월까지의 輸出實績을 品種別로 보면 크링카 2,201천톤, 시멘트 1,321천톤으로 크링카가 전체의 62.5%를 차지, 예년에 비해 시멘트보다 많았는데 이는 東南亞國家들이 시멘트 Mills를 增設하여 크링카 需要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시멘트輸入은 內需가 안정세를 보였고 生産增大로 그 필요성을 상실하고 있는 가운데 1/4분기 23천톤, 2/4분기 447천톤, 3/4분기 293천톤, 그리고 4/4분기 250천톤을 輸入해 전년의 5,550천톤에 비하면 18.3%에 불과한 1,013천톤에 그쳤다. 이 가운데 러시아, 중국, 북한에서 輸入商社의 輸出代金決濟用으로 들어온 37천톤을 제외하면 모두 일본에서 輸入한 것으로 이는 東洋, 雙龍, 漢拏에서 輸出物量의 확보로 內需販賣物量이 부분적으로 부족해 需給調節用으로 輸入한 것이다.

4. 在 庫

지난 몇년간 지속해온 過熱建設景氣로 심한 공급부족 현상을 나타냈으나 지난해부터 需給均衡을 이루기 시작, 비수기인 지난해말부터 올해초까지 在庫가 크게 늘어나 2월말에는 크링카를 합하여 사상최고인 4,008천톤에 이르러 판매부진에 따른 在庫負擔外에 저장시설 부족으로 2중고를 겪기도 했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비수기중 성수기를 대비한 비



(단위 : 천톤)

	92		93	
	기 수	능 령	기 수	능 령
서울·경기·강원	50	276.4	50	276.4
충 북·충 남	23	121.8	25	126.4
전 북·전 남	26	154.7	26	154.7
경 북	16	93.0	19	99.0
경 남	23	172.0	25	192.0
제 주	3	7.5	4	10.5
계	141	825.4	149	859.4

축물량 확보와 生産増大로 1/4분기말에는 전년대비 168.0% 증가한 3,353천톤이었으나 본격적인 성수기인 2/4분기말에는 전년대비 138.1% 증가한 2,302천톤을 나타냈다. 이처럼 2/4분기말 재고가 전년동기말보다 138.1%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전년동기 在庫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며 1/4분기보다 무려 1,051천톤이나 줄어들어 급격한 감소를 보였고, 국내시멘트 소비량의 45.0% 정도를 占有하고 있는 首都圈地域 포장시멘트의 경우 荷置場, 驛頭 등에 쌓아놓은 在庫가 789천대로 바닥을 보이기도 했다.

3/4분기중 7,8월의 경우 잦은 강우로 2,758천톤까지 증가하였으나 9월에는 맑은 날씨와 7,8월에 이월된 수요가 한데 맞물려 큰폭의 需要增加를 나타내어 전년보다 12.7% 감소한 1,812천톤을 기록하였다.

금년말 재고는 새해 성수기를 대비한 비축물량 확보와 生産能力 증대에 따른 生産增加로 2백만톤 이상이 豫想되어 비수기 在庫로는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5. 輸送 및 流通

지난 수년간 新都市 住宅建設 등 住宅景氣의 활황으로 시멘트 需給規模가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시멘트 輸送 및 流通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浮刻되었다.

시멘트는 전국 어느곳에서나 同一한 販賣價格이 형성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제한된 비용내로 공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輸送과 保管이 차지하는 비중이 타업종에 비해 매우 높아 物流環境에 따라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멘트물동량 증가와는 달리 국내 물류환경은 악화일로에 있어 交通滯症, 流通基地建設의 어려움, 社會間接施設의 微弱 등은 流通効率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어 物流管理의 必要性이 점차 커지고 있다.

또한 시멘트는 生産地와 消費地의 地域的 偏在, 需要의 季節性이 시멘트需給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어 소비지의 備蓄機能 強化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내 시멘트업체들의 매출액중 물류비가 차지하

는 비중은 10~15%로 交通滯症 등으로 인해 날로 증가하는 물류비가 경영악화 요인으로 지적되어 流通基地 擴充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멘트 流通基地를 建設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시멘트 流通基地의 立地로 가장 적합한 港灣, 鐵道敷地의 경우 寄附滯納時限이 20년에 불과해 막대한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어렵고 특히 流通基地를 建設할 적당한 港灣, 鐵道敷地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막상 敷地와 投資財源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民願發生으로 惹起되는 제반문제로 건설이 매우 어려운 實情이다.

92년말 141기, 825천톤의 저장능력을 갖고 있던 流通中繼基地의 시멘트사일로는 금년에 東洋이 창원·거제에, 雙龍이 서대구·제주에, 韓一이 청주에, 漢拏가 홍천에 流通基地를 증설 또는 신설하여 8기, 34천톤이 새로 늘었으며 따라서 연말에는 시멘트사일로 149기에 859천톤의 저장능력을 갖게 되었다.

地域別로 보면 首都圈에 전체 流通基地 貯藏能力의 33.5%가 집중되어 있어 시멘트 다량소비처에 流通基地가 인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금년 9월까지 總輸送實績은 전년보다 10.3% 증가한 37,064천톤으로 手段別 輸送比重을 보면 鐵道가 13,588천톤으로 36.7%, 陸送이 12,589천톤에 34.0%, 海送이 10,887천톤인 29.3%로 鐵道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나 급증한 물동량에 비해 鐵道輸送能力의 不足으로 그 비중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고 陸送과 海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